

커뮤니티케어 토대 마련 '간호협의체' 발족

간호협회 산하 112개 시·군·구 분회 참여 ... 선언문 5개항 채택

간호사, 커뮤니티케어 성공 위한 핵심인력

커뮤니티케어 정부계획 9월 발표 ... 내년 선도사업 시작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간호사들은 다함께 발족선언문을 낭독하며 결의를 다졌다. 선언문을 통해 △간호협회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군·구 분회 조직에 커뮤니티케어 조직과 통합적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사업, 지역보건법의 방문간호사업, 의료법의 가정간호사업이 커뮤니티케어 조직과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법·제도 개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쌍방향 소통 시스템 혁신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장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과 간호의 역할' 주제로 강연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 경과 및 사업내용,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방문간호스테이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진세 전문위원장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코디네이터, 병원 환자의 퇴원관리,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특히 112개 시·군·구 분회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사업,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방문간호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사업 등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에 맞게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연구 및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케어에서의 간호사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오는 8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식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발족된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보건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병원과 시설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병

원·시설연결형에서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지역연결형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간호협회가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한 것은 시대를 선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해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에서 추진하게 될 많은 정책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재택의료 활성화, 보건소의 상시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병준 추진본부장은 "간호사의 참여로 커뮤니티케어가 완성될 것이며, 이번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간호사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과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의 시도간호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커뮤니티케어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들은 방문간호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서비스의 주된 제공자로서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면서 "이제 간호사들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나눠주는 제공자를 넘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한서대학교 양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이민아)에서 참여했다. 김경애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영재의료재단 큰술병원 간호부(간호부장 김영숙)에서 참여했다.

간협, 통합콜센터 명칭 공모전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에 박은영 간호사의 '넬스 톡' 선정

대한간호협회가 새롭게 오픈하는 '통합콜센터'의 명칭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 고층상담과 면허신고, 일반상담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정체성을 담아낼 통합콜센터 명칭을 지난 7월 5~15일 공모했다. 전국의 간호사 360명이 응모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수상작으로 최우수상 1개 작품, 우수상 1개 작품,佳作 1개 작품, 참가상 20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간호사들이 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박은영 명지병원 간호사의 'Nurse Talk'(넬스 톡)이 차지했다. 이는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와 간호사의 정체성을 잘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으로 강문자 강동경희대병원 간호사가 출품한 'Nurse 119'가,佳作으로 김윤수 이대목동병원 간호사의 'KNA 두드림센터'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참가상 20명을 선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Mighty Global Player로 함께 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2019년도 한림대학교의료원 신입간호사 모집공고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인원	응시자격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000명	가. 2019년 2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00명	나.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000명	다. 전 학년 성적 'B' 학점 이상인 자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000명	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000명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해 우대

2. 전형방법 및 전형일정

1차 전형	서류심사	온라인 접수 (채용사이트) : 2018년 8월 27일(월) 09:00~ 2018년 9월 9일(일) 24:00
1차 합격자 발표		채용사이트 : 2018년 9월 20일(목) 14:00 [인재채용-전형결과확인]
2차 전형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 지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공지
3차 전형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2차 합격자에 한함. 지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공지

3. 접수방법 및 기타

온라인 입사지원	가. 한림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 - 인재채용 (http://recruit.hallym.or.kr) 지원병원 선택, 온라인 접수만 가능 나. 지원 시 제출 서류(온라인 첨부만 가능) 1)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성적 포함, 평점 및 전체석차 필히 기재) ... 1부 2)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혹은 재학증명서) 1부 3) 기타 관련 자격증, 어학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면접시 제출 구비서류	가. 군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성 지원자만 제출) 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에 한함)
기타	가. 의료원 통합 채용이 아니므로 입사를 원하는 병원 선택 후 지원하기 바람. (한림-강남-춘천-한강-동탄, 의료원내 복수지원 불가) 나.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며,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험료는 지원서 접수 마감 전 반드시 출력 후 면접 당일 지참.

4. 문의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031)380-4021, 4750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02)829-5103, 5674
-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 02)2639-5051, 5052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 033)240-5236, 5536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031)8086-2091, 2092